

# “규제 전 막차” 가계대출, 도로 늘었다

### 은행 가계대출, 4조3000억 늘어 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가계대출 급증기 2015~16년 3월 평균치(4.8조)와 맞먹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출규제 강화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은행의 3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76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액(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72%) 확대됐다. 지난해 11월(6조7000억원) 이후 4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기였던 2015~16년 3월 평균치(4조8000억원)와도 맞먹는 수준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8000억원)보다 증가액이 1조원 더 뛰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주택 거래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4000호로 전월(1만1000호)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7000호)에 비해서는 두배에 달할 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대출 규제 강화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몰린 영향도 있다. 지난달 말에는 차주의 상환능력

을 더 꼼꼼히 살피는 신(新) DTI가 도입됐고, 올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죄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이 예정돼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3월은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절적 영향도 있고,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를 앞두고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며 “가계대출 증가세의 방향이 급증하는 쪽으로 추세적으로 바뀐다고 보는 어렵고 일시적인 요인이 컸다”고 해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5000억원 늘어난 199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설 상여금 등으로 가계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며

기타대출 증가액이 700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달 다시 확대된 것이다.

기타대출 증가세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로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16년 1분기중 기타대출 증가액은 각각 -1조8000억원, 1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 1분기 증가액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대출 규제 강화에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일종의 ‘풍선효과’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도 4조1000억원 늘어난 796조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대출이 전월 1조5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1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이 4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중소기업에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은 2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액(2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취업자 증가 추이 전년동월대비 증가, 단위:명



실업률 단위:%



자료: 통계청

## 취업자 증가폭 두달째 10만명대

###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실업률 17년래 최약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두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1년11개월만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0명(0.4%)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9월 31만4000명을 기록한 뒤 10월부터 석달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다가 11월(33만4000명)에 3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2월(10만4000명)에 10만명대로 고꾸라진 뒤 두 달째 10만명대에 머무른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4~5월 이후 1년 11개월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1%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60.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관광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5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8000명, 4.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행정(9만9000명, 5.7%), 건설업(4만4000명, 2.3%),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4만4000명, 10.5%)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던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는 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0.9%) 줄었다. 전월(-2만2000명)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다.

도매 및 소매업(-9만6000명, -2.5%), 교육서비스업(-7만7000명, -4.0%), 부동산업(-3만명, -5.7%)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명(10.6%)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실업률은 4.8%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15~29세) 실업자는 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3.6%)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1.6%였다. 이는 2016년 3월 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2000명(0.1%) 늘었다. 이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6만6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만2000명(1.8%) 늘어난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늘었다.

## 6월·11월, 항공권 가장 저렴...“10~20% 싸다”

지난 1년간 130만건의 항공권 예약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저렴한 항공권은 6월과 11월 출발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티몬은 11일 인기 도시 40개의 지난해 항공권 130만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지역별 가장 저렴한 항공권은 6월과 11월 출발편이었다.

연평균 항공권 가격 대비 6월 티켓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후쿠오카, 도쿄, 방콕, 타이베이, 파카오, 하노이, 호치민과 푸켓 등이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의 연평균 가격은 21만원대지만 6월 티켓은 17만원대, 도쿄와 타이베이 역시 6월 항공권이 각각 13%, 15% 저렴했다.

방콕의 6월 출발 평균 항공권 가격은 40만원대로 연평균보다 5만원, 가장 비싼 1월 평균 가격보다 14만원 저렴했다. 4인 가족이 6월에 방콕을 방문하면 1월에 가는 것보다 56만원의 항공권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연중 11월 출발 티켓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오사카, 다낭, 괌, 세부, 홍콩, 코타키나발루 등이었다. 세부 항공권 운임은 11월 출국할 때 연평균 대비 19%, 괌은 18%, 오사카는 17%가 저렴했다. 세부 항공권은 연평균 35만원대였지만 11월에는 28만원대까지 내려갔다.

괌의 11월 출발 평균 항공권 가격은 33만원대로 연평균 가격인 40만원보다 7만원이 저렴했고, 가장 비싼 8월보다 15만원이 낮아졌다.



## 이색 봄나물로 환절기 건강 챙겨요!

11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순창 참 두릅 등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 점포에서 강원도 눈개승마와 명이나물, 순창 참두릅 등 이색 봄 산나물을 판매한다. 가격은 강원도 눈개승마 1팩에 4,500원, 순창 참두릅 1팩에 6,800원.

11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순창 참 두릅 등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 점포에서 강원도 눈개승마와 명이나물, 순창 참두릅 등 이색 봄 산나물을 판매한다. 가격은 강원도 눈개승마 1팩에 3,800원, 강원도 명이나물 1팩에 4,500원, 순창 참두릅 1팩에 6,800원.

## 혼수용품도 온라인서...판매 수직상승

### 결혼시즌 앞두고 에어컨 268%·세탁기101% 등 인기

위메프는 이달 들어 등 혼수용품이 최대 두배이상 더 판매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저렴한 혼수용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에어컨은 전월 동기 기준 268.5% 판매가 늘었다. 세탁기는 101.8%, 건조기 51.6%, TV 9.7% 판매가 증가하는 등 가전제품 관련 매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도 196.9% 판매가 늘었다.

식기류 관련 매출도 크게 늘었다. 냄비세트는 전월 동기 대비 42.5% 증가했고, 식기세트는 22.5% 늘었다.

온라인을 통해 예단을 준비하는 소비층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예단이붙은 41.9%, 한복 19.0% 각각 증가했고, 웨딩드레스 매출도 46.5% 늘었다.

위메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 시즌에 맞춰 보다 다양한 혼수 관련 특가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